

센고쿠 열차

센고쿠 열차: 이바라 역사에 대한 헌정

이바라의 사무라이 시대를 엿보는 여행은 이바라 철도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바라 철도는 히로시마현의 간나베부터 오카야마현의 소자까지 운행되는 이바라선 1개 노선만을 운영합니다. 유인역에서는 종이 승차권도 판매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원맨카’라고 불리는 열차에서 내릴 때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합니다. 1~2량 열차는 독특한 장식이나 디자인으로 꾸며진 경우도 있어 철도 애호가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역사를 테마로 한 ‘센고쿠 열차’입니다.

센고쿠 열차는 일본의 전국(일본어로 ‘센고쿠’) 시대(1467~1568)를 테마로 한 1량 열차입니다. 활과 화살 실루엣 장식과 지역 무장들 간 경쟁이 격렬했던 시대에 이 지역을 통치 또는 침공했던 무장의 가문 문양 등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도 주변 지역의 상징 문양이 들어간 사무라이의 투구 모형으로 장식된 손잡이도 있습니다. 센고쿠 열차에서는 현지의 중요 인물 및 유명한 옛 싸움터, 산성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쓰인 일본어, 영어 해설이 제공되어 마치 가이드 투어를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센고쿠 열차는 하루에 여러 편이 비정기적으로 운행되며 시간표는 이바라 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만 제공)

일본 전국 시대의 권력

전국 시대라는 명칭은 중앙 정부가 지방 무장들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연이어 발생한 피비린내 나는 전란에서 유래된 것으로, 각 지역 무장들의 가문 싸움, 영토 확장 시도가 전투로 발전한 시대입니다. 또한 민중 반란의 시대이기도 했으며, 기술 발전과 고도의 문화가 성숙해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군사력과 지역 교역 모두 도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도로는 일본의 여러 지방을 잇는 시치도(7개의 길)였습니다. 이 시치도 중 하나인 세토 내해를 따라 난 구 산요도(루트가 조금 다르지만 현재 산요 자동차도로의 전신)는 일본의 혼슈(일본을 구성하는 섬 중 가장 큰 섬) 서부와 수도인 교토를 잇는 주요 경로였습니다. 이 도로 중 일부는 오다 강을 따라 이바라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이바라는 산이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무장의 입장에서는 도로나 강 이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전국 시대 이전부터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싸움과 다양한 세력의 침공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도로 주변의 교통을 감시, 관리하기 위해 산성이 전략적인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산성은 화려한 구조물이 서 있고 두꺼운 벽이 있는 성이 아닌 간소한 목조 감시탑과 물자와 무기를 보관하는 막사였습니다. 건물로 가는 길은 험난한 지형에 지어진 토루(흙으로 쌓은 성채)와 해자로 막혀있기 일쑤였습니다. 산성 주위의 산 지형이 방어의 중요한 열쇠였기 때문에 산 자체가 하나의 ‘성’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무장들은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도로, 강에 대한 힘을 과시하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에 이용했습니다.

다카코시 성은 이바라에서도 손꼽히는 산성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구 산요도 도로의 북쪽에 있는 같은 이름의 산 위에 있었으며, 목조 건물은 없어졌지만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기념 공원이 같은 장소에 남아 있습니다.

호조 소운: 최초의 전국 시대 다이묘

다카코시 성은 사후 호조 소운으로 알려진 이세 신쿠로 모리토키(1432~1519)와 인연이 있는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생지는 알 수 없지만 빗추(지금의 오카야마현 서부 지역)의 이세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해당 가문은 다카코시 성을 다스렸으므로 이바라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조 소운은 후에 이즈 지역(지금의 도쿄도와 시즈오카현 일부 지역)을 정복하며 일본 전국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다이묘(영주)가 됩니다. 이후 그의 자손이 일본 간토 지방의 대부분을 지배하며 정복을 이어갔으나 결국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의 천하통일을 노린 침공에 패배합니다.

호조 소운의 이즈 지역 정벌은 일본 전국 시대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의 새로운 영토 획득에 대한 적극성이 동시대의 다이묘들에게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 후 남은 반평생 동안 호조 소운이 이바라 지역을 다스리지는 않았으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기에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소운노사토 에바라역이라는 이름은 호조 소운에서 따온 것이며 센고쿠 열차의 차체 랩핑에도 호조 소운은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차 앞면에 설치하는 원형 배지의 중앙에도 호조 소운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